

만화로 보는 '명상 주역 에세이 32'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화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그러나 위대한 생명의 힘을 갖춘 건괘의 구삼이기에, 모든 일을 쉽없이 성실히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화(禍)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척려(惕厲)입니다.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 성실히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위태하게 여기는 상(有能乾乾 惕厲之象)이 군자의 상이라는 것이 이해되나요?



우리는 보통, 성인이라면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인 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마음을 가진 아이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맑지만 다가오는 어려움을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맑지만 그는 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물들지 않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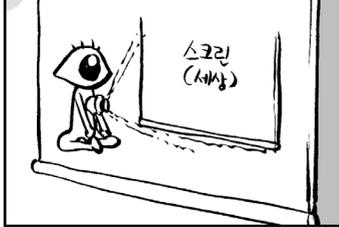
보통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자신을 '나'와 '너'로 명백히 나누어 놓고 그중 일 부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 쓸 때입니다.



즉, 자기 마음이라는 '하나의 스크린'을 나와 너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놓고, 그중 '나'라는 일부분만을 자기가 여기고 다른 부분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 속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돌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코 '밖'이라 여겨지는 세상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스크린에 비친 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별을 밖을 살펴보는 도구로 쓰지 않고, 그 내적인 분열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분열로 스스로를 마음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분별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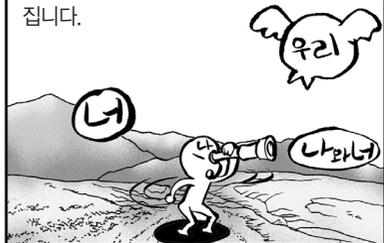
그렇다면 기능을 잘 사용하고 그 속에 빠지지는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 모두를 분별하되 자신은 그 모든 분별을 떠난 자리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의 마음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분별 속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나와 너'를 떠난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나'를 중심하기에 '너'를 더 멀리하게 되어 '우리'라는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 집니다.



그리되면 보통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무언가에 몰입해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하나의 마음이 '해야 할 일'과 '두려움'으로 나뉘어 에너지가 분산되므로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분산된 빛이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은 레이저와 같이 한가지에 몰인해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건괘의 구삼은, 주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알아채고 일을 처리하지만, 일이 잘되고 못 되고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분열 속에 빠지지 않고, 모든 분열을 '알아채는' 마음이 됩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분노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분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도 일정 부분 그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다른 이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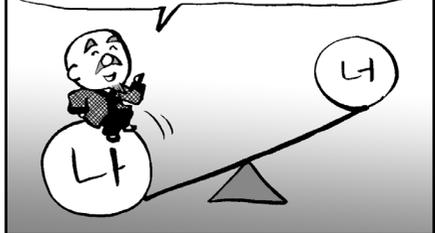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찌 분노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슬픔을 '안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성인도 다른 이의 슬픔과 분노를 모두 경험합니다.



다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어떤 마음의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스스로를 '나와 너'로 나누어 놓고 그중 '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노와 슬픔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나와 너'로 분리시키는 분열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알아침'으로 가득하여 분열없이 깨어있는 알일원(一元)적인 마음도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종일건건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은 주로 두려움만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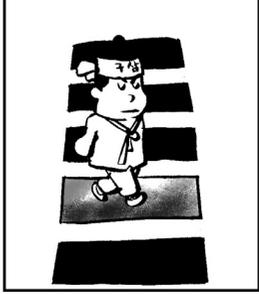
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정되어 있으면 종일건건하며 무언가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동시에 가지기는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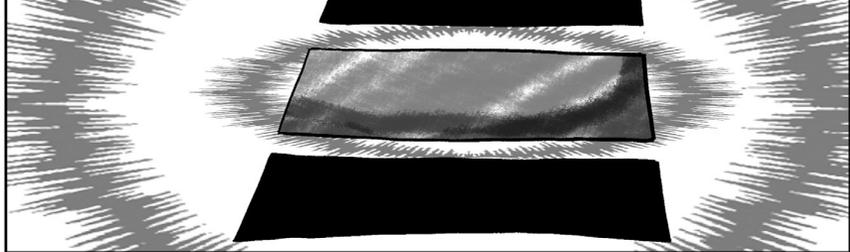
오직 성인만이 종일건건 하면서도 다가올 화를 두려워함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두려움과 종일건건이라는 마음의 작용 모두를 넘어선 곳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역은 '그 본성과 본체가 강건하여 하루종일 나태하지 않다(性體剛健 日夕不懈)'라 하였습니다. 구상! 그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본체(性體)가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음(剛健)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